

약자 앞에서, 우린 어떤 생각을 할까

광주 출신 웹툰 작가 석우 '오렌지 마말레이드' KBS 드라마로

뱀파이어 정체 숨긴 전학생 인기 남학생 판타지 로맨스



성소수자·다문화 가정·소외된 이웃의 이야기기도



광주 출신 웹툰 작가의 작품이 드라마로 제작된다.

오는 5월15일부터 방송될 예정인 KBS 드라마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석우(본명 정석우·사진)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석우 작가는 광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 웹툰이 처음으로 드라마로 만들어지는데 그동안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성공한 사례도 있고, 잘 안 된 사례도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겠다"며 "그동안 관련 계약 관련 제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제 작품을 받아들이는 작가님의 마인드가 좋아서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종족과 세기를 초월한 남녀의 순수하고도 달콤한 러브스토리를 다룬 작품이다. 특히 뱀파이어의 정체성을 숨기고 조용히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백마리와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훈남' 정재민의 로맨스가 감성적으로 잘 그려졌다.

드라마에서는 최근 가장 '핫'한 배우 여진구가 정재민 역을 맡았고, 걸그룹 AOA의 멤버 설현이 백마리를 연기한다. 또 남성밴드그룹 'CNBLUE'의 멤버 이종현이 미소년 뱀파이어 한시후로 출연해 삼각 로맨스를 펼친다.

"처음에는 남자 배우가 여진구씨라는 말을 듣고, 만화속 '이미지와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진구씨가 연기하는 웹툰속 정재민은



"여진구·AOA 설현 주인공 커플 잘 어울려"

키가 크고 잘생긴 미소년이거든요. 그런데 티저 광고 등을 통해 연기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들었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연기력으로 씬어 먹는 것 같아 '믿고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AOA의 설현씨는 이번 드라마 할 때 처음 알았어요. 두 커플 자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조선대 애니메이션학과를 졸업한 석우 작가는 지난 2008년 웹툰 '향수'로 데뷔했고, 이후 '17살, 그 여름날의 기적'을 선보였다. '향수'는 석우 작가의 대학 졸업 작품이다.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연재했던 작품이다. 최근에는 단행본(전 8권, 세미콜론)으로 발간됐다. 특히 러브스토리뿐만 아니라 뱀

파이어를 통해 본인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내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렌지 마말레이드'를 통해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성소수자, 다문화가정 등 우리 주변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모두가 대상이죠. 그런 분들이 진짜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작품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도 처음이라 서툴렀습니다. '사랑'과 '소수자'라는 코드를 함께 이끌어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17살, 그 여름날의 기적'은 10대 청소년들의 아픔과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 등을 그린 작품이다. 특히 석우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이 함께

녹아있다. "스스로 학창시절 사춘기 청소년들의 방황과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편입니다. 저도 어릴 때 소외당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됐고,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로 다시 가면 어떻게 대한 생각이 있었죠."

석우 작가는 대학 4학년 때 전공을 애니메이션에서 만화로 바꿨다.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수백 장씩을 그려야 하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혼자 하기 힘든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쪽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가 강도하 작가님의 웹툰 '위대한 캣츠비'를 보고 나서 전공을 만화로 바꿨습니다."

석우 작가는 현재 다음 작품 구상을 위한 긴 휴식을 갖고 있다.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30대를 타겟으로 하는 어두운 분위기의 스펀지러가 될 것 같다"며 "확실하게 회원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석우 작가는 광주 출신 가수 비브라운의 2집 앨범 '널 사랑할 거야'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널 사랑할 거야' 뮤직비디오는 웹툰과 실사가 융합된 뮤직비디오로, 석우 작가가 카메라로 출연했다. 비브라운은 올해 초 3집 앨범을 내고 발라드곡 '못난 심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어! 작품이 변했어

미테-우그로 이세현 사진전...관객과 소통하며 작품 완성

작가는 자신의 작업노트를 전시장에 펼쳐냈다. 아직 완성된 작품은 없다. 매일 서터를 누르고, 찾아오는 관객들과 커피를 마시고,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한다.

다음달 14일까지 대인예술시장 내 아트스페이스 미테-우그로에서 열리는 사진작가 이세현씨의 개인전은 작가의 작업 과정을 관객들이 엿볼 수 있는 전시다. '조립되지 않은 레고'라는 부제처럼 작가는 전시장에서 매일 관객들을 만나고, 또 작품을 만들고 있다.

돌이나 흙을 하늘에 뿌리고 그 찰나를 담은 그간의 작품들, 수십 번의 촬영으로 파노라마와 같은 느낌처럼 담아낸 풍경들,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콜라주 작업들

이 전시장이자 작가의 작업실 곳곳에 걸려 있다.

이번 전시는 작품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을 만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때문에 매일 찾는 전시장이 매년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이 시들어가는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 작업 과정에서, 또 관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서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 찾고 싶은 것인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했다.

동신대를 졸업한 이씨는 광주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시에 참여했으며, 그동안 서울과 광주에서 수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10-6680-9833.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호남연정국악연수원 목요 열린무대

30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사)호남연정국악연수원(원장 선영숙)이 오는 30일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진행하는 목요일국악한마당 무대에 선다. 30일 오후 7시 전수관 공연장.

'밧과 흥이 넘치는 우리 음악의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입춤'으로 문을 열며 가야금 산조 중에서도 가락과 선율의 변화 무쌍함이 돋보이는 김병호 류를 예능보유자 선영숙 원장이 연주한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교본 이수자인 기세규씨가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을 들려주며 전남도립국악단장을 역임한 신상철 선생을 중심으로 기억할주 '시나위'를 연주한다.

그 밖에 유쾌함이 묻어나는 '놀부 마당쇠 글자치는 대목'과 이애숙씨가 이끄는 소고춤이 흥겨운 무대를 장식한다.

30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사)호남연정국악연수원은 문화예술교육, 꿈나래 토요방과후 수업, 마을 찾아가 문화배달 등과 함께 제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자체 극단 '연정'을 중심으로 창작 전통마당극도 개발하고 있다. 관람료는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던롭침대



가구빌딩

홍스게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